

		<h1>보 도 자 료</h1>		
		배 포 일 2019. 7. 19.(금)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해양개발과	담 당 자	• 과장 유은원, 팀장 신선호, 사무관 이경환, 주무관 이민영 • ☎ (044)200-5289, 6181, 6182, 6184	
	극지연구소	담 당 자	• 정책협력부장 신형철, 팀장 이지영, 행정원 조하나 • ☎ (032) 770-8430, 8630, 8632	
보 도 일 시		2019년 7월 2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남극지구과학 올림픽 한국에서 열린다

- 제13차 국제 남극지구과학 심포지엄(ISAES 2019)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7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3차 국제 남극지구과학 심포지엄(ISAES 2019)*'을 개최한다.

*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arctic Earth Sciences

'국제 남극지구과학 심포지엄'은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가 4년마다 개최하는 과학분야 국제 학술대회로, '남극지구과학 올림픽'으로 불린다.

* 남극연구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남극에서의 과학협력과 육상·해양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 1958년 설립된 국제과학위원회(ICSU) 산하 민간 학술기구(우리나라는 1986년 가입)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1991년), 인도(2015년)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4개국의 남극지구과학 연구자 450여 명이 참석한다.

남극권은 대기, 해양, 생물의 상호 작용과 빙하 증감의 균형 등을 통해 지구환경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남극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땅덩어리인 동남극과 비교적 활동적인 서남극

으로 이루어져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인간의 접근이 어려워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 동남극 지역은 15억년 전에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서남극 지역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여러 조각의 땅덩이가 조합되어 지각활동이 활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극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한 지질학적 증거, 남극 대륙의 형성과 화산활동, 생물군 진화 등 남극지구과학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심포지엄 기간 동안 총 26개 세션에서 441건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기조강연에서는 세계 유수의 과학자 10인이 과거의 연구결과와 미래 남극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논의한다.

특히,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부의장인 개리 윌슨(Gary Wilson) 박사는 '향후 10년간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연구활동과 당위성'을, 한국극지연구위원회 위원장인 김예동 박사는 '지난 30년간 한국 남극지구과학 연구의 발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남극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국제 남극지구과학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남극과학연구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제13차 국제 남극지구과학 심포지엄 개요 >

- 일시/장소: 7. 22.(월)~26.(금) / 인천 송도컨벤시아(2층 그랜드볼룸A)
- 주최/주관: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 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
- 주요내용: 남극 지구과학 분야의 최근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협력 및 발전 방안 등 논의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목 적

- 아시아에서 3번째*로 남극 지구과학 분야 대표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연구성과 홍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 국제 남극지구과학 심포지엄 아시아권 개최 현황 : 일본(6차, '91년), 인도(12차, '15년)

□ 개막식 개요

- (時·所) '19.7.22(월) 09:00 / 인천 송도컨벤시아(2층 그랜드볼룸A)

* 전체 일정 : '19.7.22(월) ~ 7.26(금) / 경기도, 제주도 등 지질현장 방문 포함

- (참석)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부의장,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극지연구소장,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연구자 등 450여명

- (주요내용) 남극 해양과 빙상 변화의 지질학적 기록, 생물군 진화 등 최근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협력 및 발전 방안 등 논의

- (주최/주관)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 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

*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58년 설립된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학술기구(우리나라 '86년 가입)

□ 주요 일정(안)

* 전 일정 영어로 진행(동시통역 미운영)

일 자	일 정	시 간	주 요 내 용
7.22(월)	개회식	09:00~09:05	주요 참석자 소개
		09:05~09:30	개회사 :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부의장 축사 : 해수부(해양정책실장), 인천시 환영사 : 극지연구소장
	본행사	09:30~10:50	기조강연 · 향후 10년 간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연구활동과 당위성 · 지난 30년 간 한국 남극지구과학 연구의 발전
		11:00~17:30	주제발표 및 토론 * 로스해의 해양과 빙상변화의 지질학적 기록, 열대-극지역 원격상관과 남극의 기후변화 등

※ 7.22~26까지 총 26개 세션 운영(기조강연 10건, 발표 441건 등)



ISAES 2019

제13차 국제 남극지구과학 심포지엄

모시는글

남극연구과학위원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3차 국제 남극지구과학 심포지엄이 7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극지구과학 관련 다양한 주제로 26개 세션이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최신 남극지구과학 연구동향 파악과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기회의 장에 귀하를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지연구소장 윤호일

행사개요	행사명 제13차 국제 남극지구과학 심포지엄 XIII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arctic Earth Sciences (ISAES 2019)
	일시 2019년 7월 22일(월) - 7월 26일(금), 09:00-17:30
	장소 송도컨벤시아
	주최  주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참석요청	개회식 송도컨벤시아 2층 그랜드 볼룸 A, 7월22일(월) 09:00-09:30
프로그램	공식만찬 셰라톤그랜드인천 3층 그랜드 볼룸, 7월24일(수) 18:30-20:30

INVITATION

Program at a glance

* Lunch will be not offered.
* Program is subject to be changed.

Venue: 2F, GrandBallroom A TBD TBD TBD

July 19-20	July 21 (SUN)	Time	July 22 (MON)	Time	July 23 (TUE)	July 24 (WED)	July 25 (THU)	July 26 (FRI)	July 27-29	
		08:00-	Onsite Registration							
		09:00-09:30	Opening Ceremony	09:00-09:40	Plenary Lecture 03	Plenary Lecture 05	Plenary Lecture 07	Plenary Lecture 09		
		09:30-10:10	Plenary Lecture 01	09:40-10:20	Plenary Lecture 04	Plenary Lecture 06	Plenary Lecture 08	Plenary Lecture 10		
		10:10-10:50	Plenary Lecture 02	10:20-10:30	Coffee Break					
		10:50-11:00	Coffee Break	10:30-12:30	S04-I S05-I S09	S02-I S20 S17-I	S02-III S23 S14-I	S15 S11 S21 S26		
		11:00-13:00	S01-I S12-I S19-I	12:30-13:30	Lunch					
		13:00-13:45	Lunch	13:30-15:00	Poster Session					
		13:45-15:00	Poster Session	15:00-17:30	S04-II S05-II S07 S18 S02-II S06	S17-II S13 S22 S02-IV S08	S14-II S10 S24			
		15:00-17:30	S01-II S12-II S16 S19-II	17:30-18:30	Post-Field Trip (Jeju Island)					
		17:30-19:00		18:30-20:30	Banquet Dinner Sheraton Grand Incheon Hotel, 3F GrandBallroom					
		19:00-21:00	Welcome Reception KCPRI 1FLobby							

Session No	Session Title
S01	Geological History of Victoria Land: Reviews and New Findings
S02	Structure, evolution, and heterogeneity of Antarctica's continental lithosphere
S03	Interpretation of Observed Seismic and Acoustic Signals from the Solid Earth and the Cryosphere
S04	Antarctic Volcanism and Magmatism: Past, Present and Future
S05	The Neoproterozoic to Cambrian Orogenies and their precursors in Antarctica and adjacent continental blocks
S06	Antarctic geothermal heat flux
S07	Circum-Antarctic Gateways: formation, evolution and global implications
S08	Evolution of Antarctic topography and bathymetry: understanding links between erosion, deposition, isostasy and ice sheet behaviour
S09	Permafrost and Periglacial ice free areas in Antarctica
S10	Modern landscape change in Antarctic ice-free areas
S11	Applied bathymetry for understanding Quaternary history and change
S12	Geological records of ocean and ice sheet change from the Ross Sea
S13	Past Climate Variability of the Southern Ocean and its Global Teleconnections
S14	Marine sedimentary records of Antarctic ice-sheet dynamics and Southern Ocean history during the Late Cainozoic
S15	Ice core sciences and Ice chemistry
S16	Significance of Antarctic Inland Freshwater Bodies - Revealing Past Processes and Projecting Responses to Change
S17	Paleoenvironmental changes in Antarctica and Southern Oceans since the last Glacial Maximum
S18	Antarctic sea ice variability and ice shelf processes
S19	Tropical-Polar teleconnection and Antarctic climate change
S20	Evolution of the biota of West Antarctica: a Gondwana perspective
S21	Geomicrobiology of Antarctica and Patagonia
S22	Emerging Frontiers in Satellite Remote Sensing and Geoinformation in Antarctic Earth Sciences: Cross-disciplinary Advances
S23	Advanced Technologies for Research and Operations in Polar Regions
S24	Earth science informing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olicy
S25	Future opportunities for the exploration of Antarctic subglacial environments
S25	Future opportunities for the exploration of Antarctic subglacial environments
S26	General Topics